

오늘의 기사판

18일) ▲장수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오후 4시 센트럴호텔 4층 로즈홀,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장수 과학 R&D,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수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장이 '노화연구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 ▲전남대 문화예술아카데미 무료 특강=오후 7시 전남대 평생교육원 306호. 김선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학과 교수, 조각가 정남진 초청 특강. ▲'녹진전망대'모노레일카 설치 제안사업 설명회=오전 9시30분 진도군청 상황실. 녹진전망대에 358m(광장-전망대) 모노레일카 설치 관련 설명회. ▲남북 수해동포 돕기 광주전남운동본부, 북측 수해지원물자 환송식=오후 3시 금남로 민주의중 공원. ▲충장로축제 D-30행사=오후 5시 광주우체국 앞

충장로축제 D-30행사 오후 5시 광주우체국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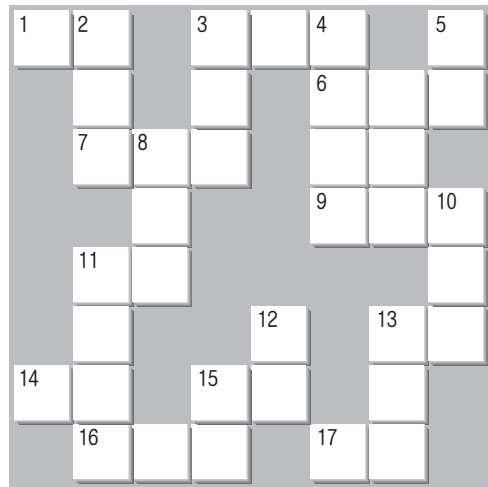
▲영암군 신북농민회(회장 박진원) 출범식=오전 11시 영암군 신북면 복지회관 2층. <19일> ▲I♥가족 I♥광주콘서트=오후 7시30분 광주 영주체육관. 독거노인에게 김치 1.7t, TV 50대 전달. 꿈·희망·사랑을 주제로 밤 10시까지. 삼성전자 임직원 등 1만여명 참석 예정.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오전 10시30분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전략 세미나=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미래 전자금융산업 Hub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경수 KTF 상무(미래 전자금융산업 Hub를 향한 도전)·이상복 LG CNS상무(교통카드(전자화폐)의 활성화 방안)·이기환 IC카드연구개발센터장(전자금융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유은영 광주 전략산업기획단장(광주시의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계획) 등이 주제 발표.

▲설이 되는 우리 가락, 치유가 되는 우리 리듬=18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조선대 미술학부 졸업전=27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정일 개인전=28일까지 일곡갤러리. ▲천연 염색 규방 공예전=20일까지 상계갤러리. ▲아트페어=2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강현덕전'=1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우리지역업체 우수제품 전시회전=21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2006년 세계농아인 미술교류전=20일까지

국제농아인미술협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10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백담 무비천 혜강스님 원국학 미술 특별전=2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지산갤러리 정년작가 초대전 '박형규전'=20일까지 지산갤러리.

역사속의 오늘

▲뉴욕 타임즈 창간(1851) ▲최초의 철도 경인선(제물포-노량진간 33.2km)개통(1899) ▲만주 사변 일어난날(1931) ▲미국 중앙정보국(CIA) 발족(1947) ▲빨치산 이현상 사살(1953) ▲프랑스, 사형제 폐지(1981) ▲노산 이은상 세상 떠남(1982) ▲제4차 유엔총회,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승인(1991)



<함께 풀어봅시다 218회 정답>

함께 풀어봅시다 < 219 >

→ 가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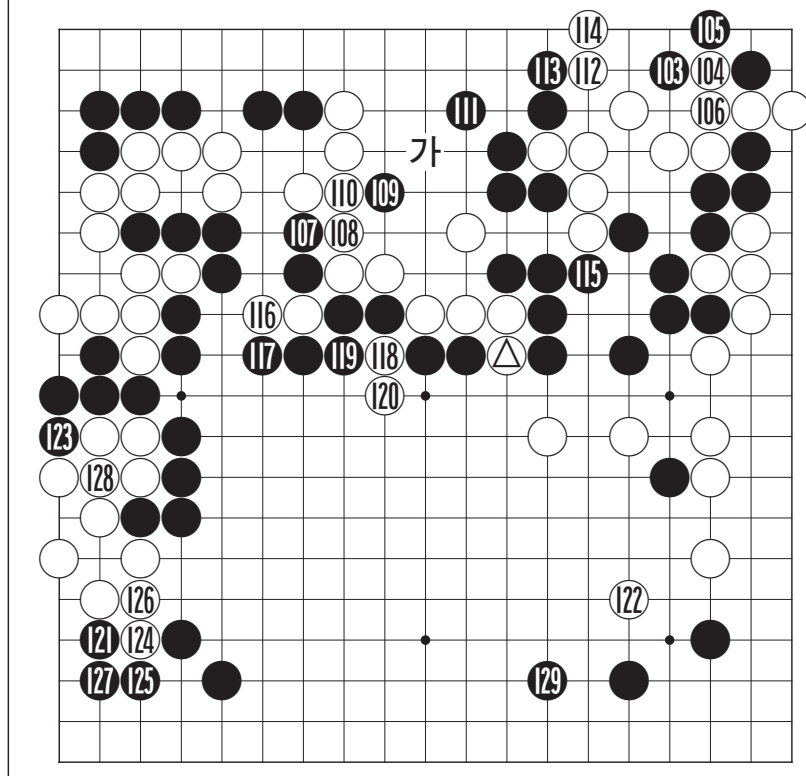
1.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중재, 이견을 ~하기 위해 실무회의가 열렸다. 3.한 주일에 한 번씩 간행하는 잡지. 6.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하는 일.→냉대. 7.국가나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영역이나 범위. 그 문제는 ~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9.상상하지 못했거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 일을 이르는 말. 지난해에 풀찌를 했던 팀이 우승하는 ~이 벌어졌다. 11.고기잡이를 하는 곳. 또는 어업을 하는 수역. 13.잘못된 번역. 14.자동차나 발전기 등의 발

동이 걸리기 시작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그는 승용차의 ~을 끌고 출발했다. 15.민간(民間)에서 사사로운 기록한 역사. 16.설탕 등의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것. ~ 주스. 17.우리나라의 언어, 나라 말.

↓ 세로풀이

2.삼포에 불인 가격표대로 예누리 없이 파는 판매제도. 3.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 그는 ~을 장악한 뒤 반대파를 제거했다. 4.날날의 쪼. 또는 부서진 쪼의 부스러기. ~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다. 5.순남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국 사절을 ~했다. 8.노름을 하는 곳.→노름판. 경찰이 ~을 덮쳐 상당의 노름꾼을 붙잡았다. 10.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일반 배경에 대하여 짝을 이루는 배경. 11.상대편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섰. 또는 그렇게 하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 12.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고유의 신앙 대상인 신 또는 국가에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 ~ 참배. 13.바다에 사는 연체동물로 다리가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예비대회 우리하다는 확신 4회전 제6보(103~129)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A>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흑의 막강했던 세력이 백 6로 흡집이 생겨 백에게도 희망이 생긴 국면이다. 이곳은 우상변 흑 대마를 위협하여 선수의 의미가 있다. 유 5단은 103부터 귀의 백을 이용하여 111을 선수하고 115로 막아 안 전하게 살아 본다. 115는 두지 않더라도 '가'만 선수 해두면 살아 있다. 하지만 유리하다는 확신이 조심성을 키운다. 이 5단도 118로 끊어 흑 두점을 잡으며 흑 세력을 상당부분 지울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추격해야 한다. 흑 121이 큰 곳으로 반 선수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백 122는 이제 와서 놓칠 수가 없는 곳이다. 흑 123이 하는 절대 선수. 유 5단은 127로 이어 백을 살려주고 말았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호구쳐야 했다. 당장 패를 하지 않더라도 백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129로 여전히 흑 우세.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국, 농심배 1라운드 2전 전패 한국이 제8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 최강전 1라운드에서 2연패를 당했다. 최철한 9단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 대회 1차전 마지막 대국에서 중국의 광전 7단에게 298수 만에 흑 3집 반패했다. 초반 대국을 리드하던 최 9단은 중반 좌변에서 의문의 수를 많이 둔데다 형세를 따라잡지 못해 무릎을 꿇었다. 한국이 조현현 9단과 최철한 9단의 연패로 2전 전패를 당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2승씩을 기록했다. 대회 2라운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1억 5천만원. 3연승할 경우 1천 만원이 지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30.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 FC로 이적한 이 선수가 5경기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밤 영국 셰필드 브래클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5차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오른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1-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25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 '스나이퍼'라는 별명이 붙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설기현 ② 이천수 ③ 김남일 ④ 정조국

참여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월 7월 26일 庚戌)

子 36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리라. 48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6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2년생 불요불급한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84년생 생김 돈보다는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21, 25 丑 37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4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해가 크다. 6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3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85년생 代價가 없는 인연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寅 38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50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62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4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재사를 철저히 마무리 하라. 행운의 숫자: 11, 34 卯 39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51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6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5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열은 보지 말고 일단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辰 40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52년생 자신의 입으로 남을 위해 불어라. 64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76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05, 26 巳 41년생 과거에 연애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3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대부분 걱정은 절대 일을 이어나갈 수 없다. 77년생 좋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14, 38 午 42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54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재물이 들어온다. 66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라. 78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야 실패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7, 29 未 43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55년생 용이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67년생 아낌은 절제하라 오히려 무효하다. 79년생 주변의 이성에 기대지 마라. 행운의 숫자: 03, 45 申 44년생 오래된 문서를 큰 재물로 변한다. 56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8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하면 된다. 80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연애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09, 36 酉 45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7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올라라 임지가 유리하다. 69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혹하지 마라. 81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금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01, 35 戌 46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70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82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행운의 숫자: 19, 31 亥 47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해도 비껴간다. 59년생 하루가 대단히 즐겁게 지낸다. 71년생 심내 목은 체증이 내려간다. 83년생 옛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꿈을 자다가도 꿀을 얻으니 귀를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04, 44

굿모닝 잉글리쉬 <735> 오하이오 니혼고 <735> 니하오 쑹구위 <453> 한자 이야기 <353>

Don't get too uptight about it 그렇게 화내지마 A:Peter, you can always go to your Dad to help you. B:That's the last thing I would do. A:Don't get too uptight about it. He wants to help you out. B:You don't know my father. A:Peter, 너는 항상 네 아버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 B: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A:그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마. 그 분은 너를 돕고 싶어 하시잖니. B:너는 우리 아버지를 몰라. uptight : 초조해하는, 화가 난 - Don't get too tight. (너무 초조해 하지마) - get uptight about ~ : ~에 대해 화내다. help out : 도와서 나가게 하다, (곤란 등에서) 구출하다 the last thing I want to do :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

元氣(げんき)だった? 잘 지냈어? A:元氣(げんき)だった? B:うん、まあね. A:なんかあったの?連絡(れんらく)もしないで. B:ううん、別(べつ)に. A:잘 지냈어? B:응, 그저 그래 A:무슨일 있었니?연락도 없고 B:아니 별로 元氣(げんき)だった : げんきの 과거형 잘 지냈구나 まあね : 그냥 別(べつ)に : 별로

再便宜点,我就买了 좀 더 싸게 해 주시면 살게요 A:便宜可以买几瓶? B:当然可以. A:再便宜点,我就买了. B:好,再便宜点. A:再便宜点,我就买了. B:好,再便宜点. A:再便宜点,我就买了. B:好,再便宜点.

鈍筆勝總 (둔필승총) 무덤 돌, 붓 필, 뛰어날 승, 총명할 총 둔필승총(鈍筆勝總)은 서투른 기록이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이다. 본래는 총명불우둔필(聰明不如鈍筆)이라고 하여, 총명함은 재주 없는 글재주만 갖지 못하다는 뜻이었는데 자사 성어로 풀어 표현한 것이다. 현대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경쟁(競爭) 시대이다. 제 아무리 머리가 총명(聰明)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도 참신한 아이디어는 고갈(枯渴)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둔필승총'의 지력(底力)이 나타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정보·아이디어·회의·대화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우선 순위순 둔필승총의 방법으로 신문(新聞)과 잡지(雜誌)의 스크랩이 있다. 요즘은 순위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정보의 질은 떨어졌다'고 한다.('신문스크랩 기술' 김상희) 신문읽기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면, 스크랩은 자기 그릇에 퍼 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일기(日記)'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便紙)'가 있다. '일기'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일과나 약속 등을 간단히 메모하는 정도로 쓰고, 편지도 자신이 받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기록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